

지구촌 양계뉴스

●●● 일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중남부에 위치한 아이치(愛知)현은 지난 1월 26일 한 양계장에서 갑자기 죽은 450마리 이상의 닭을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월 27일 발표했다. 아이치현은 이에 따라 해당 양계장의 닭 15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하고 자위대 병력 등을 동원해 27일 바로 처분작업에 들어갔다.

또 중부 내륙부의 나가노(長野)현도 27일 죽은 야생 쇠오리를 검사한 결과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23일 규슈(九州) 남부 미야자키(宮崎)현에서도 AI가 확인돼 41만 마리의 닭을 27일까지 살처분했다. 이어 25일에는 미야자키현에 인접한 가고시마(鹿児島)현에서도 AI가 확인돼 8,600마리를 살처분했다. 가고시마와 미야자키는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양계 생산량 1위와 2위다.

이처럼 AI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7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감염 확대 방지책을 논의했

다. 일본 정부는 감염경로로 추정되는 야생조류의 양계농가 접근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기로 했다.

- 조선일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농림수산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본부'는 지난 1월 26일 다음과 같이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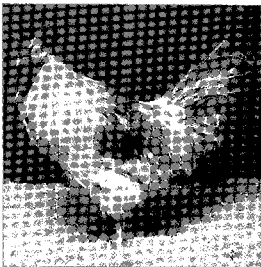
- ① HPAI 방역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 사육 가금류 도살처분 및 이동제한 지역 설정 등 방역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
- ② 이동제한 지역 농장에 대해 신속하게 발생상황 확인검사 실시
- ③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주변 소독강화, 주요도로에 소독지점 설치
- ④ 현과의 정확한 연대도모를 위해 긴밀한 연락(현지파견 또는 전화문의)
- ⑤ 감염상황, 감염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방역정책 검토를 위해 농림수산성 전문가 현지 파견
- ⑥ 살처분 및 방역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검역소의 '긴급지원팀' 파견

- ⑦ 감염경로 등의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팀 파견
- ⑧ 전 도도부현에서 조기 발견 및 조기 신고를 철저히
- ⑨ 관계부처와 충분한 연계를 도모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 www.maff.go.jp

●●● 영국

AI 전염 막는 '수퍼 닭' 탄생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키지 않는 '수퍼 닭' 이 탄생했다.

미국의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는 지난 1월 14일자에 영국의 캠

브리지대와 에든버러대 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닭 유전자 변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달걀의 유전자를 조작,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키지 않는 닭을 만들었다. 이 변형된 유전자는 우성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BBC방송에 따르면 연구팀은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시키는 유전자 조작은 다른 동물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에 의한 동물 질병인 구제역 전염 방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기법은 변종 바이러스의 복제도 억제시키기 때문에 백신보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닭의 유전자 조작에 반대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가금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이 기법의 적용에 앞서 유전자 변형이 장기적으로 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론적으로 유전자 변형 닭과 달걀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람들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에 크게 이롭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중앙일보

●●● 독일

닭들도 다이옥신 함유량 허용치 두 배

독일에서 '다이옥신 오염사료'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닭들에서도 다이옥신 함유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독일 언론매체가 지난 1월 8일 보도했다.

주간지 포커스는 독일 농업부가 작성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란계 세 마리의 지방조직 표본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허용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하지만 해당 주 정부들은 "이 닭들을 먹어도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위험 경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이옥신이 함유된 동물사료 첨가물을 생산한 할레스&엔취사(社)가 소재한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는 향후 손해배상에 대비해 할레스&엔취사의 자산을 확보했다. 할레스&엔취사가 이미 지난해 3월 표본 검사에서 자사의 동물사료용 지방에 법적 허용치의 78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정부 당국자들은 밝혔다.

앞서 독일 농업부는 지난 1월 5일 의회 보고 자료에서 할레스&엔취사에서 만든 다이옥신이 함유된 동물사료 첨가물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최대 3천톤이나 25개 사료생산업체에 공급됐으며, 사료업체들이 지방산 첨가물을 2~10%의 비율로 넣어 사료를 만들었다고 밝혀 다이옥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 당국은 다이옥신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모두 4천709개의 농장을 폐쇄했다. 폐쇄된 농장 대부분은 북서부 니더작센주의 돼지사육 농장들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이옥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폐쇄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독일산 돼지고기 또는 계란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도 수입 검역을 강화하는 등 독일에서 발생한 다이옥

신 오염사료 사태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한편 ‘다이옥신 계란’ 파문에도 대부분의 독일인은 계란을 여전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여론조사업체 엠니트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여전히 계란을 먹고 있다고 답했다.

- 부다페스트=연합뉴스


미국

조류 및 가금 제품에 대한 HPAI 수입조건 개정

미국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은 지난 1월 2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모든 아형(subtype)이 존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조류 및 가금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 규정은 단지 H5N1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은 미국으로 HPAI의 유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APHIS는 HPAI의 H5형, H7형에 대한 백신을 했거나, H5형, H7형 백신 접종한 조류 또는 가금에서 생산된 부화란(hatching egg)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백신접종한 조류 및 가금은 미국 수입 후 30일간의 검역기간 동안에 HPAI 검사에서 의양성이 나올 수 있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www.aphis.usda.gov